

“코로나 시대의 방역·일상회복의 든든한 버팀목”

대구시지부, 방역에 총력... 정영만 회장 “지속적 지원” 약속

단신

화재예방 물품 전달

대구 서구지회는 9월 8일 지역 내 거주하는 참전용사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90대와 경보형 감지기 16대 등 화재예방을 위한 물품을 서구청에 전달했다.

청렴실천 릴레이 캠페인

경북 성주군지회 김정희 여성회장은 9월 7일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한 ‘청렴 실천 릴레이’ 챌리지 행사에 동참했다.

WLFD 자유장 전수

경북도지부 이우경 회장은 9월 7일 청송군청을 찾아 윤경희 청송군수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군민행복 및 복리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LFD) 포상인 자유장을 아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전달했다.

농촌 일손돕기

대구 북구지회는 9월 5일 경북 의성 사과농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태풍 피해 복구 자원봉사

경북 포항시지회는 8월 30일 시내 일원에서 제12호 태풍 ‘오마이시’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산물 교류행사

대구 달서구지회는 8월 27일 자매지회인 경남의령군지회와 농산물 교류행사를 갖고 고춧가루 400근을 전달했다.

밀반찬 지원 봉사활동

경북 칠곡군지회 여성회는 8월 20일 관내 북한이탈주민, 홀몸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6가정을 대상으로 밀반찬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구시지부(회장 정영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의 방역과 일상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했다.

대구시지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기본생활수칙 홍보 등 시민 캠페인(3,073명), 지역사회 방역활동(937명), 취약계층 사랑나눔활동(6,612명), 마스크 배부, 의료진 후원 활동을 통해 방역·생활품(53,100개) 등 총 2억 8천만 원(2021. 6월 기준)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2020년에만 2억 1천만원 가량을 지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시의회 의장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영만 회장은 “연맹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지역사회에 헌신과 지원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마스크쓰GO·기초질서준수’ 캠페인

| 대구시지부 |

대구시지부(회장 정영만) 산하 분회협의회는 9월 2일 ‘마스크쓰GO 및 기초질서준수 캠페인’을 공평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1000여 장의 방역마스크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춘한 분회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해 앞으로는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읍·면·동 분회회장들의 지도 아래 시민홍보 거리캠페인에 보다 많은 참여와 지원을 약속하고, 마스크를 벗는 그 때까지 방역전선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해피박스 나눔

| 경북 영주시지회 |

경북 영주시지회 여성회(회장 김의순)는 8월 23일 ‘사랑의 해피박스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김의순 회장 등 회원 5명이 참여해 코치닐비누 29장, 청대비누 28장을 만들어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송정원 환경정화

| 경북 청송군지회 |

경북 청송군지회(회장 권오영)는 8월 28일 산소카페 청송정원, 백일홍 단지 담당 구역에서 환경정화 및 제초작업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권오영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40명이 참여해 화단 주변에 자라난 잡목과 잡풀들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정원 조성에 힘썼다.



백신 예방접종 자원봉사활동

| 경북 경주시지회 |

경북 경주시지회(회장 한영훈, 여성회장 한정희)는 지난 5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경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지회는 경주시의 협조 요청에 동참해 5월부터 현장에

투입돼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안내, 발열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주시지회 한영훈 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폭격 희생자 위령제

| 경북 포항시지회 |

경북 포항시지회(회장 조원호)는 9월 3일 도읍산 산림문화수련장에서 한국전쟁 당시 포항시에 미군의 폭격사건으로 희생한 민간인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허맹구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회장을 비롯해 조원호 회장 등 내빈과 연맹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